2020년 12월 16일 I Global Equity Research



# 반도체: 2021년 지역별 장비 투자, 한국 즁가. 대만/중국 감소

투자의견	반도체 애널리스트 김경민, CFA	RA 김주연
Overweight	clairekm.kim@hanafn.com	kim_juyeon@hanafn.com

2021 년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1 년의 반도체 장비 투자가 대만과 중국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는데 한국에서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는 이와 같은 전망치를 담은 [Semiconductor Equipment Forecast - OEM Perspective]를 12월 15일에 SEMICON Japan 행사에서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 현황과 전망은 2019년 595억 달러, 2020년 690억 달러, 2021년 718억 달러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16.0%, 2021년 +4.1%이다.

2020년에 반도체 장비 투자를 견인한 지역은 중국과 한국이다. 중국은 2019년 134억 달러, 2020년 1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1% 증가했다. 한국은 2019년 99억 달러, 2020년 1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6%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파운드리 및 메모리 반도체가 장비 투자를 견인했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및 메모리 반도체가 장비 투자를 견인했다.

2021 년에는 양상이 달라진다. 지역별 장비 투자의 Y/Y 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한국 189 억 달러 (+20.4%), 중국 168 억 달러 (-7.2%), 대만 156 억 달러 (-7.1%)이다. 한국이 증가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NAND 장비 투자 규모를 늘리기 때문이다. 중국이 감소하는 이유는 SMIC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영향과 칭화유니그룹의 재정위기 때문이다.

대만이 감소하는 이유는 그동안 TSMC 의 시설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 오히려 역기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만 내에서 반도체 장비 투자를 견인하는 파운드리 공급사 TSMC 가 2019 년과 2020 년에 급격하게 장비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다시한 번 장비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시각이 컨센서스에 반영된 것 같다. 참고로 TSMC 의 반도체 장비 투자는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100 억 달러 수준이다가 2019 년 150 억 달러, 2020 년 170 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선단공정 장비투자와 후공정 장비 투자 때문으로 추정한다. 170 억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19조 원에 근접한 규모이다.

TSMC의 2020년 반도체 장비 투자가 19조 원에 근접한 반면, 삼성전자의 2020년 시설투자는 35.2조 원이다. 그 중에서 파운드리 관련된 장비 투자는 10조 원 미만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2021년에 5nm 선단공정에 시설투자가 집중되면서 파운드리 관련된 장비 투자는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향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밸류 체인에서 시스템 반도체 장비 매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기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2021년의 지역별 장비 투자 중에 한국만 유의미하게 중가. 중국과 대만은 감소

자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하나금융투자



### 반도체

#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2.19%	7.81%	0.00%	100%

<sup>\*</sup> 기준일: 2020년 12월 16일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민, CFA)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민, CFA)는 2020년 12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 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